

문화산업을 통한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고찰*

- 한·일 양국의 OSMU를 통한 『게 가공선』의 재평가-

김대양**
daeyang76@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한·일 양국의 출판 산업을 통한 『게 가공선』 |
| 2. 한·일 양국의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을 통한 『게 가공선』 | 4. 나오며 |

주제어: 고바야시 다키지(Kobayashi Takiji), 게 가공선(The Crab Cannery Ship), 문화산업(Culture Industry),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Visual Arts and performing arts industry), 프롤레타리아문학(proletarian literature),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

1. 들어가며

문화콘텐츠산업은 21세기 새로운 고부가가치산업이자 주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03-1933, 이하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蟹工船)』(1929)처럼 소설이 원 소스가 되어 멀티 유즈가 되는 방식은 이야기 문화산업의 전형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문화계의 동향을 보면 문학작품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 연극, 드라마, 만화, 애니메이션 등이 많이 생산되고 있다. 이처럼 문학작품은 문화산업에 있어서 양질의 원 소스(One Source)를 제공하는 문화콘텐츠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그럼 고바야시의 작품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해 과거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화콘텐츠로 재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바야시는 권력이 민중을 지배하던 암울한 시대에 사회적 문제를 근저로 문학이라는 수단을 갖고 시대에 저항하다 비극적인 죽음을 맞았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5A07072266).

** 제주대학교 일어일문학과 강사

그의 죽음이 무력적 지배 정책에 대한 모순, 제국주의적 자본주의의 모순 등에 대항한 혁명적이고 민중 영웅적으로 인식되어 변모해 왔기 때문이다.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은 나프(ナッフ, 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의 기관지였던 잡지 『전기(戰旗)』에 2회(1929년 5월호, 6월호)에 걸쳐 발표된 작품이다. 고바야시는 4년에 걸쳐 게 가공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북양어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작품 『게 가공선』을 완성시켰는데, 실제로 일어났던 하쿠아이마루(博愛丸) 학대사건(1926)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고바야시는 이 작품을 통해 북양 어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노동자들에게 대한 가혹한 처우, 관리자들의 부당한 폭리 등을 고발함으로써 당시의 자본주의의 구조 그리고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와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고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폭로했다.

본 연구는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을 원형 콘텐츠로 활용하여 원 소스 멀티 유즈(One-Source Multi-use)화한 문화콘텐츠를 통해 고바야시의 시대인식을 통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을 원형 콘텐츠로 하여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재생산된 문화콘텐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그 작업의 일환으로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에 관한 문헌이나 자료 등을 기반으로 재생산된 문화 담론을 살펴보고, 한·일 양국 간의 고바야시와 관련 사회·문화적 파장(시너지) 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또 다양한 문화산업에 재현된 고바야시의 시대정신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재현, 소통되어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표상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지금까지 고바야시와 관련한 한국의 연구는 주로 한정된 텍스트 안에서 역사적, 사상적 연구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 왔다. 즉 고바야시의 시대인식¹⁾이나 프롤레타리아 문학운동²⁾을 중심으로 시대적,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고찰해 왔다. 그 외에도 한·일 노동소설 비교³⁾와

- 1) 『고바야시 다키지 문학의 서지적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3장은 작품 『게 가공선』의 성립, 복자(伏字), 동시대 평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4장에서는 고바야시 다키지의 실질적인 처녀작 『1928년 3월 15일』의 성립과 복자 그리고 작품의 중심인물들을 통하여 작품에 나오는 ‘소리’의 의미에 대해 고찰했다. 5장에서는 『당 생활자』의 ‘나(私)’와 가사하라(笠原)의 본성을 중심으로 두 사람이 ‘함께 되기(一緒になる)’ 이전과 ‘함께 된’ 이후, 가사하라의 ‘실직’ 이후, 또 가사하라의 ‘취직’ 이후, 가사하라의 ‘다방 숙박’ 이후 등의 여러 가지의 상황 변화에 따른 ‘나’와 가사하라의 애정의 변화 과정에 대해 분석했다. (황봉모(2011) 『고바야시 다키지 문학의 서지적 연구』 어문학사, pp.8-251)
- 2) 「고바야시 다키지 『1928·3·15』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론」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 시점기법으로서의 ‘전위의 눈(前衛の眼)’이라는 창작방법이 고바야시 다키지의 작품 복수의 시점으로 구체화되어간 양상을 시점 인물의 의식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박진수(2003),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1928·3·15』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론」 『日本學報』 57, pp.421-434)
- 3) 「한·일 노동소설비교연구 : 강경에 『인간문제』 고바야시 다키지 『게 가공선』을 중심으로」는 두 소설의 공통분모를 ‘노동’ 혹은 ‘노동자’란 측면으로 보고 ‘노동’이 벌어지는 장소, ‘노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차단된 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인간문제』가 외부로부터 의식화 된 지식인을 통해 노동 현장 내부의 의식화를 이룩해간다면, 『게 가공선』은 노동자들 속에서 자연발생적이고 필연적인 의식화 과정이 진행되어 간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두고 노동자의 변모과정을 비교한 연구이다. (이승희(2001)

한·일 경향소설의 비교⁴⁾로 『계 가공선』을 분석해 왔다. 하지만 국내에서 고바야시에 관한 구체적인 문화 담론 연구는 그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에 비해 거의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그것은 종래의 연구가 주로 고바야시의 역사적, 사상적 평가 및 시대적 요소를 중요시해 왔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좀 더 본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바야시와 관련한 일본의 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을 처음으로 평한 사람은 시구레(思久嶺)이다. 시구레는 「5월의 창작 월평-정취 있는 작품을 추천한다(五月創作月評-雅趣ある作風を推す)」에서 “『계 가공선』은 읽을 만하고, 작자의 불굴의 의지도 느껴져 유쾌하였다⁵⁾”라고 말했다. 시구레의 평은 『계 가공선』관련 최초의 평이라는 것과 작품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고바야시가 많은 영향을 받은 일본 프롤레타리아문학의 대표적인 이론가인 구라하라 고레히토(蔵原惟人)는 「작품과 비평(作品と批評)」에서 “노동자 집단을 묘사하려 한 것, 『계 가공선』에서의 착취를 폭로하고 사회적 문제를 그 바탕에 두고 그것을 객관적인 예술적 형상으로 묘사하였다⁶⁾”고 평가했다.

근래에 와서는 이즈 도시히코(伊豆利彦)의 『전쟁과 문학-지금 고바야시 다키지를 읽는다(戦争と文学-いま、小林多喜二を讀む)』⁷⁾와 이마니시 하지메(今西一)의 『『계 가공선』과 마이너리티(『蟹工船』とマイノリティ)』⁸⁾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고바야시 다키지 탄생 100년,

「韓·日 労働小説比較研究：강경애『人間問題』小林多喜二『蟹工船』을 중심으로」『同日語文研究』16, pp.65-78)

- 4) 한국·일본 경향소설의 政治와 文學 비교연구 : 작품『고향』과 『계 가공선』을 중심으로는 두 작품에 투영된 정치적·사회적·문화적 상관성에 관하여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양국의 경향소설의 내적 변화 양상과 그 성격에 있어서의 유사성(類似性)과 상이성(相異性)에 대해 고찰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한일의 경향소설의 구조적 특성을 밝힌 연구이다. (김순전(1995)「韓國·日本 傾向小説의 政治와 文學 比較研究：作品『故郷』과 『蟹工船』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学』, pp.97-148)
- 5) 思久嶺「五月創作月評-雅趣ある作風を推す」報知新聞(1929.5.2)
- 6) 蔵原惟人「作品と批評1, 2」東京朝日新聞(1929.6.17-18)
- 7) 이즈 도시히코는 “현재의 젊은이들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방향전환하고 있다. 그들은 직접 권력에 의해 탄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쇼와(昭和) 역사에 대해 완전히 무지했다. 또한 일본이나 세계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지적 관심을 잃어버렸다. (중략) 그러한 젊은이들이 『계 가공선』을 읽고 그 잔혹한 착취가 이뤄지는 현실이 자신들의 현실과 완전히 동일하다는 것에 놀라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저서는 탄생 100년 기념 고바야시 다키지 국제 심포지엄에서 생각한 내용과 청년 다키지의 방황과 발견, 프롤레타리아 문학작품과 그 이론, 전후의 시가 나오야와 고바야시 다키지의 문제에 대해 논한 것이다. (伊豆利彦(2005)『戦争と文学-いま、小林多喜二を讀む』本の泉社, pp.3-221)
- 8) 『계 가공선』을 고바야시가 목표로 한 ‘전체소설(全体小説)’로써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약자나 마이너리티 문제와 연결시켜 고바야시 문학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이누족의 생활과 차별, 국내 식민지로서 홋카이도, 사할린, 류큐 등을 당시 식민지(조선, 대만)와 비교하며 식민지성(植民地性)에 대해 논하고 있다.(今西一(2013)『『蟹工船』とマイノリティ』『多喜二の文学、世界へ-2012小樽小林多喜二国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小樽商科大学出版会, pp.211-220)

사후 70년을 맞이하여 2003년부터는 시라카바 문학관(白樺文学館)의 다키지 도서관이 발족하여 「탄생 100년 기념 고바야시 다키지 국제 심포지엄(生誕100年記念小林多喜二國際シンポジウム)」를 열었다. 세계에서 고바야시가 어떻게 읽히고 있는가에 대해 일본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의 연구자를 모아 개최하였다.

본 연구는 고바야시를 과거에 국한된 한시적이고 고정적인 인물로써가 아닌 한·일 양국 간 근대에서 현대를 관통하는 사회적, 문화적 OSMU를 통해 고바야시의 통합적이고 탈경계 인문학(Trans-Humanities)적 연구를 지향한다. 고바야시리는 시대적 문화 아이콘(cultural icon)은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문화산업과 연계되어 콘텐츠화 될 것이며, 이렇게 다원화되는 문화산업의 검토를 통해 새로운 고바야시의 지형도를 정립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2. 한·일 양국의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을 통한 『계 가공선』

고바야시의 재현은 사회적, 정치적, 시대적 요구나 저항에 따라 변형 및 재평가되었다는 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을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화한 영화, 연극, 드라마, 특집 다큐 등을 중심으로 『계 가공선』의 재해석 및 반향과 수용 관계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먼저 작품 『계 가공선』을 처음으로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화한 것은 연극이었다. 연극은 1929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신쓰키지극단(新築地劇団)에 의해 「북위 50도 이북(北緯五十度以北)」이라는 타이틀로 제국 극장에서 상연됐다. 연극의 타이틀이 「계 가공선」이 아닌 이유는 원작을 상당히 왜곡한 각본이었기 때문에 일본 프롤레타리아 극장 동맹(프룻트)의 항의를 받아 「북위 50도 이북」으로 제목을 바꾸어 간신히 상연하게 된 것이다. 각색은 다카다 다모쓰(高田保), 기타무라 고마쓰(北村小松)가 맡았고 연출은 히지가타 요시(土方興志)가 했다. 하지만 『계 가공선』을 증보 각색한 연극 「북위 50도 이북」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연극에 대해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는 “이것은 최근 우리들의 진영에서 최대의 수확의 하나일 고바야시 다키지의 소설 『계 가공선』의 증보 각색이라고 선전하지만 양자에는 거의 어떤 공통 점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가 있다. 이 각본에 있는 것은 흥행사적인 장나눔과 거의 노동자에 대한 모욕이라고까지 생각되는 싸구려 같은 피상적인 묘사이다”⁹⁾라고

9) 村山知義「新築地を見る」東京朝日新聞(1929.7.29)

신랄하게 비평했다. 이처럼 원작 소설 『계 가공선』을 재해석함에 있어서 소설과 연극이라는 장르의 차이, 표현방식뿐만 아니라 원작의 해석 방식, 관점의 차이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이후 1968년에는 고바야시 다키지 사후 35년 기념과 동경예술극단(東京芸術座) 창립 10주년 기념으로 「계 가공선」이 공연되었는데, 각색은 오가키 하지메(大垣肇), 연출은 연극「북위 50도 이북」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무라야마 도모요시(村山知義)가 맡았다. 고바야시와 친분이 있었던



山村聡, 영화 「계 가공선」의 한 장면

무라야마 도모요시가 만든 구성을 바탕으로 극본을 썼기 때문에 각본의 단계에서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연출 의도가 들어있어 극적(劇的)인 효과를 연출했을 뿐만 아니라 소설 원작의 본질을 표현하려 했다. 무라야마 도모요시가 연출한 「계 가공선」은 세상의 개혁과 개개인의 삶을 사람들에게 호소하는 강한 힘을 가진 연극으로 고바야시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과 동시에 시대는 쇼와(昭和) 초기이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간의 삶이 그려져 있다. 개개인의 힘은 작을지 모르지만 작은 힘이 뭉쳐서 결국은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연극을 통해 보여주었다. 2009년에는 야스카와 슈이치(安川修一)의 연출로 극단 배우 극장(劇団俳優座)에서 상연되었다. 야스카와 슈이치의 각색의 특징은 배에 올라타는 것을 ‘지옥’에 비유했다. 소설에서도 처음 시작부분이 “지옥으로 가는 거야.”라는 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무라야마 도모요시의 연출에서는 인간관계의 설명부터 하고 나서 마지막에 가서야 “지옥으로 가는 거야.”라는 대사를 하는 것이 차이가 있다.

연극에 뒤를 이어 1953년 10월에는 일본을 대표하는 야마무라 소(山村聡) 감독이 일본 문화청(文化庁)에서 주최하는 예술제(芸術祭)에서 영화 「계 가공선」을 공개했다. 제작은 현대프로덕션(現代ぷろだくしょん)이 했고 감독, 각본, 주연 모두 야마무라 소가 맡았다. 그 후 50여 년이 지난 2009년에는 사부(SABU) 감독이 영화 「계 가공선」을 개정하여 재조명했다. 사부는 원작 소설의 스토리 구조는 그대로 남기면서 세련된 영상과 독특한 유머로 현대적으로 각색했다. 영화 「계 가공선」이 영화화되고 시대를 넘어 다시 각광을 받은 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과제가 현대 사회의 문제와 중첩되고, 현대 사회의 모순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매개 역할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다큐멘터리, DVD, TV 방송 등도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의 재현을 통해 고바야시를 당시 시대에 맞서서 대항하는 개혁자로 형상화하였다.

다음 <표1>은 『계 가공선』을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으로 다룬 콘텐츠를 정리한 것이다.

<표1>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을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으로 다룬 콘텐츠

국가	작품명	콘텐츠 유형
일본	土方興志, 「北緯五十度以北,新築地劇団, 1929 山村聡, 「蟹工船」, 現代ぷろだくしょん, 1953 村山知義, 「蟹工船」, 東京芸術座, 1968 _____, 「蟹工船」, 劇団はぐるま座, 1987 安川修一, 「蟹工船」, 劇団俳優座, 2009 SABU, 「蟹工船」, IMJエンタテインメント, 2009 山梶貴久, 『30分でわかるシリーズ蟹工船』, エースデュース, 2009 オムニバス 外7人, 『蟹工船-日本の労働歌集』, キングレコード, 2009 歴史秘話ヒストリア, 「たった一人のあなたへ『蟹工船』小林多喜二のメッセージ」, NHK, 2010.2.24	연극 영화 연극 연극 연극 영화 DVD CD 방송
한국	SABU, 「계어선」, IMJ엔터테인먼트, 2009 제14회 부산국제영화제 상영(「아시아 영화의 창」부분), 2009 강원원, 「계공선」, 극단 동, 2015	영화 영화 연극

위의 <표1>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을 문화산업으로 다룬 콘텐츠는 『계 가공선』이 발표된 해에 만들어졌다. 대부분이 ‘연극’이라는 공연예술로 산업화되었다. 이렇게 일본에서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을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을 통해 다시 재조명·재생산된 이유는 현재의 일본 사회가 80년 전과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를 못 느끼는 노동현실,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병리 현상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2009년 「계어선」으로 번역되어 영화가 상연되었다. 2015년에는 <극단 동>에서 강원원 연출로 연극 「계공선」이 공연되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고 이념을 잘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며 각색하였고, ‘1920년대 한 청년이 진정한 노동자로 성장하는 연극’으로 구상했다고 연출자는 밝혔다. 고바야시가 붙인 『계 가공선』의 부제는 ‘식민지 시대의 자본주의 침략사’인데, 그것에 적합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연극의 부제를 ‘자본주의라는 지옥을 향해하는 배’라고 정했다. 특히 연극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2014년에 발생한



강원원, 연극 「계공선」의 포스터

‘세월호 침몰 사고’를 연상시킬 뿐만 아니라 오로지 돈만이 우선시 되는 추악한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연극 「계공선」의 연출자 강량원은 “배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세월호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사실 자본주의 속성이 배를 침몰하게 했다는 점에서 세월호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¹⁰⁾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어떻게 분노하는지, 어떻게 대항하는지, 어떻게 동지의식을 느끼고 배신감을 느끼는지 잘 설명되지 않았다. 그리고 원작에서는 단조롭게 지나간 조선인 노동자들¹¹⁾을 한국인의 시선에서 왜 더욱 부각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마니시 하지메(今西一)에 의하면 “계 가공선의 노동자가 홋카이도에 이어서 아오모리(青森), 아키타(秋田) 등 동북지방 출신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식민지 조선인도 78명이나 있었다. 물론 제국 신민(帝國臣民)으로서 등록된 조선인들을 합하면 더 많이 있었을 것이다. 같은 해 「러시아 어장 출어부·잡부 출신 조사(露魚魚場出魚魚雜夫出身府県別調)」에서도 66명의 조선인이 있었다”¹²⁾고 말하고 있다.

또 연극과 원작 소설의 다른 점 중 하나는 노동자를 감시하고 노동자를 군림하는 지배계급으로서 아사카와 감독의 존재이다. 소설에서는 다른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아사카와’라는 이름이 나오며,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인물로 묘사된다. 하지만 연극에서는 ‘아사카와’라는 인물을 제외시켰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연극평론가 권경희 씨는 “계 가공선 내부에서 표면적 갈등의 원인이자 집단 저항의 일차적 표적인 감독, 그러나 그 인물은 사실상 허수의 존재에 불과하다. 진정한 적은 감독의 보호망인 ‘계 가공선’이고 그 그림자 뒤에 버티고 있는 자본주의 구조이다. 결국 연극 「계공선」에서 감독을 배제한 건 옳은 결정이었다”¹³⁾고 평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에서 공연예술 산업으로 생산된 연극 「계공선」은 민족 간의 관계가 아닌 계급 간의 관계로 풀어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품 『계 가공선』은 계급 간의 관계만이 아닌 일제강점기 시기 조선인 노동자의 노동현실과 식민지의 현실을 살펴보는 데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 작가 고바야시가 죽고 그가 쓴 소설 『계 가공선』이 영화, 연극 등으로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화되어 재해석되고 있다. 이것은 각 장르마다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고바야시 문학이 시대를 거치면서 아직도 살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강량원(2015)「<계공선> 연출노트」『공연과 이론』공연과 이론을 위한 모임, pp.165-169
 11) “사람들은 아침에 어두컴컴할 때부터 일터로 내몰렸다. 그리고 곡괭이 끝이 힐끗힐끗 푸르스름하게 빛나고 주위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일했다. 특히 조선인은 십장들에게도 같은 동료 인부(일본인)들에게도 ‘깃뺏히는’ 대우를 받았다.” (고바야시 다키지(1929)『계 가공선』4장, p.307)
 12) 今西一(2013)『「蟹工船」とマイノリティ』『多喜二の文学、世界へー2012小樽小林多喜二国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小樽商科大学出版会、pp.215-216
 13) 권경희(2015)「감차카의 검은 바다가 되비추는 오늘의 현실 <계공선>」『연극평론』한국연극평론가협회, p.41

3. 한·일 양국의 출판 산업을 통한 『계 가공선』

이 장에서는 고바야시의 작품 『계 가공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형태로 가공, 변환된 출판 콘텐츠산업을 분석함으로써 그 변용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출판은 문화산업의 하나로서 문화 활동으로서의 가치를 창조하는 문화적 기능을 가진다. 출판이라는 매체가 소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콘텐츠들은 일차적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검증된 스토리라고 할 수 있다. 종이책, CD-ROM, e-Book, POD 등의 출판 매체는 그러한 콘텐츠를 담는 그릇이며, 그 콘텐츠는 영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반, 공연,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에 맞게 재가공 될 수 있다.¹⁴⁾

사실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바야시를 소재로 한 문화콘텐츠가 현재 진행형으로 상품화되고 있다. 특히 2008년 ‘가니코선 붐(蟹工船ブーム)’¹⁵⁾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는 영화, 연극, 다큐, 드라마 등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출판, e-Book, 모바일, CD-ROOM 등 출판 콘텐츠산업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활용되면서 그 가치를 재조명 받고 있다. 출판 콘텐츠산업은 문화콘텐츠 시대 소재의 원천을 제공하는 중요한 콘텐츠의 하나로 기술의 진보와 함께 그 의미와 영역이 확대되고 진화하고 있다. 기존의 종이와 잉크를 사용한 출판이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활용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문화산업의 매체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 사건, 인물이나 작품을 콘텐츠 화하여 인문학적 다변화를 꾀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수반함으로써 지금까지 고정적, 획일적인 서술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식을 도출하는 계기의 장이 되고 있다. 고바야시와 그의 작품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은 1929년에 나프(NAPF, 전일본무산자예술연맹)의 기관지였던 잡지 『전기(戰旗)』의 5, 6월 호에 발표된 후 1929년 9월 발행의 『계 가공선』, 1929년 11월 발행의 『계 가공선 개정판』, 1930년 3월에 발행된 『계 가공선 개정 보급판』이 단행본으로 발행되었다. 초판 단행본 『계 가공선』은 고바야시의 또 다른 작품 『1928년 3월 15일』과 같이

14) 문화체육관광부(2002)「출판인쇄문화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서」문화체육관광부 정책 연구소

15) 전전(戰前)의 프롤레타리아문학 작품 『계 가공선』이 2008년에 판매량이 갑자기 증가하고, 각 출판사의 문고판·만화판 등을 모두 합하여 총 80만부에 육박하는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 해 1월 마이니치(毎日)신문에서 작가 아마미야 가린(雨宮処凛)이 프리터(フリーター), 일용직 파견(日雇い派遣), 인터넷카페 난민(ネットカフェ難民) 등의 현상은 『계 가공선』과 같다고 발언한 것이 계기였다. 그리고 우에노(上野)역의 구내서점 직원이 소설 『계 가공선』에 주목하여 신초문고0판 150부를 구입했는데 모두 팔렸다. 이에 각 대형서점들도 판매를 시작했고 언론들도 주목하면서 단숨에 붐이 일어났다. (『週刊朝日編集長の知恵蔵キーワード<蟹工船ブーム>』「朝日新聞」2008.12.19)

수록되었는데 발매금지를 당했다. 하지만 발매금지를 당하기 전까지는 개정판, 개정 보급판 모두 매진을 거듭했다. 이러한 인기의 영향으로 전기사(戰旗社) 이외의 다른 출판사에서도 발 빠르게 발행하기 시작한다.

이후 1931년 2월에는 『프롤레타리아 문학집(プロレタリア文学集)』(현대일본문학전집 제62 편, 改造社)에 수록되었고, 1933년 4월에는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2권』(일본 프롤레타리아 작가동맹 출판부), 『계 가공선·부재지주(不在地主)』(新潮社, 1933. 4), 『계 가공선·공장세포(工場細袍)』(改造社, 1933. 5),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1권』(ナウカ社, 1935. 3),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3권』(日本評論社, 1949. 2) 등 계속해서 간행되었다. 나우카사(ナウカ社)의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 제1권』은 사실상 처음으로 전집의 형태로서 발행되었고, 일본평론사(日本評論社)의 『고바야시 다키지 전집』은 잡지 『전기』에 발표했던 초출(初出)을 저본(底本)으로 해서 복원했다.

1953년에는 신조 문고(新潮文庫)에 의해 초판이 간행됐으며, 2008년 기준 판매량이 110만 부를 돌파했고, 신조 문고의 『계 가공선·당 생활자(蟹工船・党生活者)』(1953)는 고전으로서는 이례적으로 40만 부가 상반기에 증쇄되어 예년보다 빠른 속도로 팔렸다고 요미우리(読売) 신문(2008. 5. 2.)은 보도했다. 초판이 발행된 이후 판과쇄를 거듭해서 생산되었고 집중적으로 화제가 되어 베스트셀러가 된 콘텐츠이다. 특히 젊은 층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당시 일본 공산당은 갑자기 젊은 당원이 증가한 것은 ‘가



1953, 『蟹工船・党生活者』의 표지

니코센 붐’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프롤레타리아에 관심이 없었던 새로운 독자인 젊은 프리터(freeter), 워킹 푸어(working poor)들은 소설 『계 가공선』을 접하고, 『계 가공선』의 노동자들에 공감했다. 그리고 자신들의 처지가 ‘자기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는 기제로서 『계 가공선』이 이용되어 현대 젊은 층의 의식변화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마루젠마루노우치(丸善丸の内) 본점, 기노쿠니야(紀伊国屋) 문고 등 대형서점에서도 『계 가공선』을 “현대의 ‘워킹 푸어’이기도 한 과혹한 노동 환경을 그린 명작이 현대의 ‘격차사회(格差社会)’에 큰 부활”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계 가공선』은 출판 콘텐츠산업에서 소설 장르만이 아닌 다른 장르로도 재생산되어 출판되었다. 2006년에 출판된 만화판(漫画版) 『만화 계 가공선(マンガ蟹工船)』은 원작을 충실하게 재가공하였고, 명작을 만화화하는 흐름에 따라 출판되어 독자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특히 많은 젊은이들은 “등장인물이 복잡하게

뒤엎혀 있어서 읽는 도중에 그만 읽는 사람이 많은 원작에 비해 만화는 작품세계에 빠져들기 쉽도록 만들어졌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잘 묘사되었다¹⁶⁾”고 평했다.

『게 가공선 - 만화로 독파(蟹工船まんがで読破)』는 시리즈의 하나로 2007년 10월에 발매되었다. 특히 주인공이 없는 원작에 비해 만화에서는 모리모토(森本)라는 노동자가 주역으로 그려진다. 이 만화는 독자들에게 이해하기 쉬운 구성으로 다가가고는 있지만 고바야시가 의도한 ‘집단으로써 노동자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게 가공선』은 출판 콘텐츠산업 안에서도 장르 구분 없이 다양하게 재가공하고 있고 소설의 만화화 경향은 대중들에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기 위한 독자와의 접점을 넓히는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이에스 고이케(イエス小池)가 소설 『게 가공선』을 만화화한 극화『게 가공선 패왕의 배(劇画蟹工船 覇王の船)』(2008)는 원래 1991년 『베어스클럽(ベアーズクラブ)』(集英社)에 실린 것이었으나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가니코센 붐’의 영향으로 다시 빛을 보게 된 작품이다. 원작의 감독 ‘아사카와’를 대신하여 만화에서는 ‘바쓰가와라 아카조우(罰河原赤蔵)’라는 극악한 캐릭터로 나오며 노동자를 학대할 뿐만 아니라 미소년 노동자를 성적으로 학대하는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작품은 원작 소설에 충실했는가 하면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한편 한국에서는 이귀원의 소설 『게공선』(1987)을 시작으로, 양희진의 『게공선』(2008), 황봉모의 『게잡이 공선』(2011), 서은혜의 『게 가공선』(2012) 등이 한국어 번역판으로 출간되었다. 그리고 만화판으로는 윤민선에 의해 『만화로 독파하는 게공선』(2009)이 번역판으로 출간되었다.

다음 <표2>는 『게 가공선』을 출판 산업으로 다룬 콘텐츠를 정리한 것이다.



藤生ゴウ, 『マンガ蟹工船』의 표지



イエス小池, 『劇画 蟹工船 覇王の船』의 한 장면

16) 「小林多喜二の体表作『蟹工船』漫画で出版」『読売新聞』(2006.11.17)

<표2> 고바야시의 『계 가공선』을 출판 산업으로 다룬 콘텐츠

국가	작품명	콘텐츠 유형
일 본	小林多喜二、『蟹工船』、戦旗社、1929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改訂版』戦旗社、1929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改訂普及版』、戦旗社、1930	소설
	小林多喜二、『プロレタリア文学集 蟹工船』、改造社、1931	소설
	小林多喜二、『小林多喜二全集第2巻』、国際書院、1933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不在地主』、新潮文庫、1933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工場細胞』、改造文庫、1933	소설
	小林多喜二、『小林多喜二全集第1巻』、ナウカ社、1935	전집
	小林多喜二、『小林多喜二全集第3巻』、日本評論社、1949	전집
	小林多喜二、『蟹工船・党生活者』、新潮文庫、1953	소설
	小林多喜二、『定本 小林多喜二全集』、新日本出版社、1968	전집
	小林多喜二、『蟹工船一名著復刻全集』、日本近代文学館 図書月販、1969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ぼるぶ出版、1985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新日本出版社、1994	소설
	小林多喜二、『蟹工船・一九二八・三・一五』、岩波文庫、2003	소설
	藤生ゴオ、『マンガ蟹工船』、東銀座出版社、2006	만화
	バラエティア・トワクス、『蟹工船一まんがで読破』、イースト・プレス、2007	만화
	小林多喜二、『蟹工船・党生活者』、角川文庫、2008	소설
	イエス小池、『劇画 蟹工船 覇王の船』、宝島社文庫、2008	극화
中村悠一 外6、『蟹工船イメージ・アルバム』、2008	CD	
小林多喜二・若山 弦蔵、『蟹工船朗読』新潮社、2008	CD	
白樺文学館多喜二ライブラリー、『劇画「蟹工船」小林多喜二の世界』、講談社、2008	극화	
小林多喜二、『蟹工船』、青空文庫、2012	Kindle版	
原恵一郎、『蟹工船』、コアミックス、2017	Kindle版	
한 국	이귀원, 『계공선』, 친구, 1987	소설
	양희진, 『계공선』, 문과랑, 2008	소설
	윤민선, 『만화로 독파하는 계공선』, 신원문화사, 2009	만화
	황봉모, 『계잡이 공선』, 지식을 만드는 사람, 2011	소설
	서은혜, 『계가공선』, 창비, 2012	소설
	황봉모·박진수, 『고바야시 다키지 선집1』, 이론과 실천, 2012	소설
	양희진, 『계공선』, 문과랑, 2014	e-BOOK
	황봉모, 『계잡이 공선』, 지식을 만드는 사람, 2014	e-BOOK
윤민선, 『만화로 독파하는 계공선』, 신원문화사, 2016	e-BOOK	

위의 <표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과 한국에서는 『계 가공선』과 관련하여 다양한 출판

콘텐츠가 산업화되고 있다. 일본에서 ‘가니코센 붐’이 일어났던 2008년에는 그 여파로 한국에서도 『게 가공선』이 신역으로 출판되었고 동시대적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의 독자들에게도 새롭게 읽혔다. 이들 대부분은 한국어 독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번역판을 출판함으로써 문화콘텐츠 영역의 확대, 재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일본만이 아닌 한국에서도 고바야시를 재규명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고바야시와 그의 소설 작품 『게 가공선』은 한·일 간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각 시대마다 반복 재생산됨으로써 하나의 역사적, 보편적 인물과 작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08년에는 『게 가공선 이미지·앨범』과 『게 가공선 낭독』이 CD로 제작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일본과 한국에서 『게 가공선』의 전자출판물(Kindle版, e-BOOK)도 제작되었다. 이처럼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은 출판 콘텐츠 산업 안에서도 소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로 재가공 되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 현재 다양한 OSMU를 통해 재현된 고바야시의 표상 중 출판 산업화한 『게 가공선』을 중심으로 새로운 읽기를 이끌어냄으로써 고바야시의 시대인식을 재정립하고 있다.

4. 나오며

지금까지 문화산업을 통한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 가공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바야시의 『게 가공선』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문화산업의 외연과 영역을 확장하여 드라마, 라디오, 특집 다큐, 연극, 영화 등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출판, e-BOOK, 모바일, CD-ROOM 등 출판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접한 독자, 관객들은 『게 가공선』과 현대 사회와의 사이에서 공통성·유사성을 발견하여 공감했고 고바야시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변형 및 재평가하였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근대 작품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문화산업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적 해석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고바야시의 현대적 해석은 기존의 고바야시의 평가보다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문화 현상 속에 재현되고 있고 고바야시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이해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고 본다. 특히 과거 권력이 민중을 지배하던 암울한 시대에 소수의 집단인 계급에서 이제는 일반 민중들도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와 각성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고바야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고바야시를 과거에 국한된 한시적이고 고정적인 인물로서 화석화되어 단지 과거로만 기려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화하여 재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김량원(2015)『『계 가공선』 연출노트』『공연과 이론』59, pp.165-169
 권경희(2015)「감차카의 검은 바다가 되비추는 오늘의 현실 『계 가공선』」『연극평론』78, p.41
 김순전(1995)「韓國·日本 傾向小説의 政治와 文學 比較研究 : 作品「故郷」과 「蟹工船」을 中心으로」『日本語文學』, pp.97-148
 문화체육관광부(2002)「출판인쇄문화산업 발전방향에 관한 제안서」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소
 박진수(2003)「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1928·3·15』와 프롤레타리아 리얼리즘론」『日本學報』57, pp.421-434
 이승희(2001)「韓·日 労働小説比較研究 : 강경애『人間問題』 小林多喜二『蟹工船』을 중심으로」『同日語文研究』16, pp.65-78
 황봉모(2011)『고바야시 다키지 문학의 서지적 연구』어문학사, pp.8-251
 伊豆利彦(2005)『戦争と文学—いま、小林多喜二を読む』本の泉社、pp.3-221
 今西一(2013)『『蟹工船』とマイノリティ』『多喜二の文学、世界へ—2012小樽小林多喜二国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小樽商科大学出版会、pp.215-216
 蔵原惟人(1929)「作品と批評1, 2」東京朝日新聞(1929.6.17.-6.18)
 小林多喜二(1993)『小林多喜二全集 全7巻』新日本出版社
 思久嶺(1929)「五月創作月評-雅趣ある作風を推す」報知新聞(1929.5.2)
 村山知義(1929)「新築地を見る」, 東京朝日新聞(1929.7.29)

논문투고일 : 2019년 03월 12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4월 16일
 1차 수정일 : 2019년 05월 05일
 2차 수정일 : 2019년 05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5월 17일

<要旨>

문화산업을 통한 고바야시 다키지(小林多喜二) 고찰

- 한·일 양국의 OSMU를 통한 『게 가공선』의 재평가 -

김대양

본고는 문화산업을 통한 고바야시 다키지의 『게 가공선』에 대해 살펴보았다. 작품 『게 가공선』은 문화산업의 외연과 영역을 확장하여 영상 및 공연예술 산업뿐만 아니라 출판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융·복합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목도한 독자나 관객들은 『게 가공선』과 현대 사회와의 사이에서 공통성·유사성을 발견하고 이에 공감했다.

『게 가공선』은 시대에 흐름에 따라 다양한 문화 현상 속에서 재현되고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이해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과거 권력이 민중을 지배하던 암울한 시대에 소수의 집단인 계급에서 이제는 일반 민중들도 각각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변화와 각성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까지 고바야시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 하고 있다. 이것은 고바야시를 과거에 국한된 한시적이고 고정적인 인물로서만이 아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대화하여 해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고바야시를 재구성함에 있어 화석화되어 단지 과거로만 기려지는 것이 아니라 현대에 이르러 재해석되어 민중 앞으로 불러들임으로써 민중 영웅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변모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A Study on the Kobayashi Takiji through Culture Industry

- The revaluation of 『The Crab Cannery Ship』 through Korea and Japan's OSMU -

Kim, Dae-Yang

This paper examined the 『Crab Cannery Ship』 of Kobayashi Takiji through the culture industry. The 『Crab Cannery Ship』 expands the extension and boundary of the culture industry and the work itself is often utilized in various territories starting from visual and performance art to publishing industry as the fusion and convergence cultural contents. Audiences or readers who witnessed such utilizations discovered the commonness and similarity between the 『Crab Cannery Ship』 and modern society and emphasized to them.

The 『Crab Cannery Ship』 is reenacted in the context of various cultural phenomena, and it is proposing new directions in approaching and understanding phenomena from various standpoints. Especially, from the rank, group of few people, sought change and awakening to the personal problem in the depressed era which the power ruled over the people, but now the general public are seeking the clue for the solution not only for personal issues but also for the issue which occurs in modern society through Kobayashi's works. Such practices indicate that people are interpreting Kobayashi not as the temporary and fixed figure but by modernizing the figure as the era changes. Additionally, as restructuring Kobayashi, people are not only fossilizing and admiring the figure as the past but also restructuring in the context of the modern times and call the figure in front of the people to change the recognition about Kobayashi as the folk hero.